

광주 학생들, 유럽에서 인권을 외치다

시교육청,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8일간 프랑스 파리·스위스 제네바 유네스코 발표... 5·18플래시몹도 "세계 민주·인권의식 등 경험 기회"

광주 학생들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민주·인권·평화 의식을 함양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5·18의 정신을 알렸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이 지난 18일부터 6박8일 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점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광주 학생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진로,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해 5개 분야 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이번에는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분야에서 학생 등 20명



지난 18일부터 6박8일간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진행된 '2023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한 광주 학생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 참여했다. 14시간여의 비행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탐방단은 먼저 에펠탑과 베르사이유 궁전을 둘러본 뒤 개선문 앞에서 인권 증진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또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 대사 및 현지 근무 외교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탐방 나흘째인 21일 광주 학생들은 유네스코에서 발표를 하는 영광을 누렸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을 맞아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유네스코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다. 유네스코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는 전 세계 청소년

대상 인종차별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이에 맞설 트레이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유네스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공동 주최해 진행한 전국 유일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시리즈’를 통해 최우수팀으로 온새미로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온새미로팀은 약 6개월간의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꾸기’ 프로젝트 활동 내역을 영어로 소개하고, 직접 제작한 교육영상을 공개했다.

탐방 닷새째인 22일엔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방문했다. UN 인권 메커니즘과 세계의 다양한 인권에 대해 브리핑을 들은 광주 학생들은 사무소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6박8일의 긴 여정동안 유럽의 학생들과 민주·인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한 광주 학생들은 보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민주·인권 국제교류에 참여한 광주송일고 2학년 서은재 학생은 “평소 민주인권과 관련 법 등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교류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유럽의 역사와 그에 깃든 정신들, 여러 국제기구에 방문하며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은 앞으로 민주, 인권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어줬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나 사건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공동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여상, 한국수출입은행 5명 공채 중 2명 합격

올 졸업 박은선·박소운 "맞춤식 취업 준비 성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한국수출입은행 고졸공채 일반업무직 5명 채용에서 광주여상 졸업생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는 지난 1월에 졸업한 박은선, 박소운씨다.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과정을 모두 통과해 수출입은행에 입사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오는 30일 연수를 거쳐 서울 영등포 은행로에 있는 본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작년 9월 2021년 졸업자 정유진씨가 고졸 공채로 합격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3명의 졸업생을 수출입은행에 입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 졸업자 정씨도 전국 2명 채용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일반공채 일반행정직에 합격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고졸공채 일반업무직 채용에 합격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생 박은선, 박소운씨.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여상은 작년 12월 국민연금공단 9명, 한국철도공사 5명, 국가직 9급 공무원 6명 등 하나의 기관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올해 졸업한 학생 중 공무원

과 공공기관 합격자가 49명 나왔다. 이들은 졸업 후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1학년부터 이뤄지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덕분이다.

또 3학년 대상으로 공무원준비반, 공공기관채용준비반, 회계세무 실무반, 진학반 같은 맞춤형 진로진학반을 운영해 우수한 취업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광주여상의 우수한 교육성과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천수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은 “우리학교의 우수한 취업 성과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믿고 열심히 노력해 준 학생들, 자녀를 전적으로 응원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미디어학교 운영

4월5일~12월20일 32개 중·고교 참여자 절반 농산어촌 작은학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학교’를 운영한다. 내달 5일 나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남 지역 32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다.

‘찾아가는 미디어학교’는 미디어 전문가 강사, 현직 작가 등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비판적·창의적 글쓰기 △비텍스트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하고, 직업인으로서의 기자·작가의 생활과 역할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글쓰기, 사진 촬영 등을 실제로 직접 해보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미디어학교’ 사업은 전남교육청이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강사비 등을 직접 지원해, 강사 초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농산어촌작은학교의 미디어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전교생 40명 이하의 농산어촌 작은학교가 전체 참여학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사업 추진 의미를 더했다.

양기람 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